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해시장 허성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 매뉴얼보다 한 단계 높은 위기경보 단계인 ‘심각’단계 수준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월 23일 시민 한 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첫 번째, 경남에서는 15번째 확진자로 확인되었으며 오늘 새벽 가족 중 한 명이 추가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 A씨는 94년생 여성으로 지난 2월 14일 부산 동래구 소재 온천교회에서 다른 확진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던 분으로서, 현재 국가지정격리병원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 격리 입원하였고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두 번째 확진자 B씨는 69년생 여성으로 첫 번째 확진자 A씨의 어머니이며 현재 국가지정격리병원인 마

산의료원 음압병실로 격리 입원한 상태입니다.

또한, 함께 거주하는 가족 4명은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자가 격리조치 중이며, A씨가 방문한 의원, 약국, 식당은 방역 조치 후 폐쇄하였습니다.

현재, 경상남도과 우리 시에서 합동으로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확진자의 감염과 이동경로,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으니,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조사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담 대응반을 구성하여 24시간 대응해 왔고,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 입국자에 대한 1:1 방문관리, 최근 자국을 방문한 중국인 근로자 전수조사, 종교행사의 취소 또는 축소 권유, 노인·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휴관, 대중교통을 포함한 다중밀집지역 방역 소독, 개인위생 수칙 준수 홍보 등 여러 가지 조치

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 산하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재는 자체 폐쇄 조치한 상태이며, 신도 중 대구 신천지교회 방문이력, 유사증상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주일 종교 활동을 인터넷으로 대체하여 감염병 예방에 힘을 보태주시는 대성교회를 비롯한 지역 종교계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김해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다수가 모이는 장소나 밀폐된 공간에는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19 발생 국가나 지역의 방문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그만 증상이 있어도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김해시 보건소(☎ 330-4481)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하여 주시고 안내에 따라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주십시오. 셋째, 미확인된 가짜 정보나 가짜 뉴스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를 주변에 전파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고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1:1 담당자를 지정하여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관리하고, 주변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정보를 최대한 빨리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더 이상 우리 지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지역 의료계와 방역관련 종사자들에게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선 안내



지난 2월 23일(일)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다.

"확진자 접촉 시민, 1대1 담당자 지정해 관리하겠습니다"

확진자 발생 긴급 브리핑
24시간 대응체제 유지



허성곤 김해시장이 2월 24일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2월 24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전날 코로나19 김해 첫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확산 방지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행정적 조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허시장은 "지난 2월 23일 시민 한 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김해시

첫 번째, 경남 15번째 확진자로 확인됐고, 2월 24일 새벽 가족 중 한 명이 추가로 확진자로 판정됐다"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허시장은 "확진자 2명은 양산부산대학병원과 마산의료원 음압병실에 각각 격리 입원한 상태이며, 나머지 가족 4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

았으나 자가격리 조치 중"이라며 "첫 확진자가 방문한 의원과 약국, 식당은 방역 조치 후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1대1 담당자를 지정해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을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최대한 빨리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그동안 김해시는 관내 대학들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대학 개강을 2주 연기했고, 대학별 중국 유학생 관리·지원을 위해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위생·방역 물품 2,500여 만원 상당을 지원했다"라며 "아울러 기숙사와 주거지에 격리된 격리자들을 위해 도시락과 생수, 세면도구 등 재해 구호 물품 2,700여 만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내 신천지교회 11곳이 전부 자진 폐쇄된 것을 현장 확인했고, 기독교와 불교 등의 종교 행사를 당분간 취소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실제로 대성교회를 비롯한 지역 종교

계에서 인터넷 종교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허시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다중 집합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안내했고, 노인·장애인 복지 시설 32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했다"라며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김해 여객터미널에는 열화상 탐지 카메라를 설치해 상시 버스 이용객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고, 경전철은 차량 내부 방역과 소독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허시장은 "미확인된 가짜 정보나 가짜 뉴스에 불안해하지 말고 이를 전파하지 말아 달라"며 "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하며 중국인 유학생 입국자에 대한 1대1 방문 관리, 최근 자국 방문 중국인 근로자 전수 조사, 종교 행사의 취소 또는 축소 권유, 노인·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 휴관, 대중교통을 포함한 다중밀집지역 방역 소독, 개인위생 수칙 준수 홍보 같은 다각도의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김해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방문객 감소로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업체 당 최고 5,000만 원 한도로 융자하고, 연간 2.5%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이에 앞서 시는 2020년 소상공인육성자금으로 총 400억 원을 편성해 1분기 자금 160억 원을 지원한다. 또 30억 원의 특별자금을 별도로 편성해 담보

력이 부족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영세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시 관내 62개 착한가격업소는 이차보전율을 2.5%에서 3.0%로 확대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추가 편성해 지원한다. 업체 당 2억 원 이내 자금을 2년간 융자하고 3% 이자를 지원하며 대환처리도 허용한다.

또 피해 기업 중 기존 경영안정자금 사용 업체도 대출 만기 후 6개월 대출 유예기간을 면제해 상환 즉시 재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금대출 기간이 만료된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3월 중에 김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같은 세계 지원도 추진한다.

김해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김해시가 마련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과 농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김해시 농·특산물 쇼핑몰 가야뜰(gayaddeul.com)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지역경제과 ☎ 330-3411

코로나19 김해시 선별 진료소 현황

김해시 선별 진료소

- 경희의료원 교육 협력중앙병원 ☎ 330-6000
- 조은금강병원 ☎ 330-0300
- 갑을장유병원 ☎ 310-6000
- 김해시 보건소 ☎ 330-4481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김해시 보건소 ☎ 330-4481 또는 질병관리본부 ☎ 1339로 먼저 상담하세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은 1339콜센터 이용이 가능한가요?

시각장애인 여러분은 상담원과 음성(전화)으로 24시간 상담 가능

청각장애인 여러분은 상담원과 카카오톡 문자(채팅)로 월~금 09시~18시 상담 가능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9 누르고 24시간 1:1 상담 가능!

카카오톡 채널에서 KCDC 질병관리본부 채널을 추가하고 언제 어디서나 1:1 상담 가능!

발행일 2020.02.20



코로나19 사기 조심하세요

마스크 무료 배포 등
차단 3종 서비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등을 악용하는 보이스포싱·스미싱 시도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마스크 무료 배포', '코로나로 인한 택배 배송 지연' 등 코로나19 정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 시도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이외에도 전화로 보건당국·확진자 등을 사칭하여 일반 국민이나 자영업체 등에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포싱 사기 및 유사 범죄 시도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전화로 '나 확진자인데 당신 식당에 갔어'라며 확진자를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사례가 있고, 전화로 질병관리본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사칭하며 방역 등을 위해 금전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기관 등을 사칭하기 위한 전화번호 조작

시도도 최근 증가하는 경향이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포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일반 국민과 자영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 3사와 협력해 모든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포싱·스미싱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향후 사태 안정 시까지 필요시 즉시 경고 발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이스포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조치들과 함께 개인의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혹시라도 본인의 개인 정보 탈취가 의심되거나 휴대폰을 도난·분실했을 경우 2차 피해를 막으려면 휴대전화 신규 개통, 명의변경을 사전에 제한하는 가입 제한 서비스, 본인 전화번호로 인터넷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번호 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분실품의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원격 제어·개인정보 원격 삭제 기능인 킬스위치(Kill switch)의 3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청 ☎ 112

금융감독원 ☎ 1332

악성앱 감염 의심 신고 ☎ 1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민행동수칙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노인·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2020.2.20. 기준

코로나19 가장 궁금한 질문들 (FAQ)



QR코드 스캔해 확인



2020.2.12.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2020.2.12.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 ✓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 ✓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가야문화축제 연기, 공공시설 휴무 안내

가야문화축제 가을로 연기
시립 스포츠센터 등 휴무

김해시는 애초 4월 3일부터 7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던 제44회 가야문화축제를 추경대체에 맞춰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김해시민스포츠센터, 김해서부스포츠센터,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장

유스포츠센터, 율하체육관 등 관내 공공 스포츠센터가 모두 휴무에 들어가고,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김해시여성센터,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해시청소년수련관 등 공공 복지시설도 일정 기간 문을 닫는다.

또한,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김해천문대, 화포천습지생태박물관, 김해시어린이교통공원, 분성산 생태숲 생태체험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등 관광지도 운영하지 않는다.

마을회관들도 문을 닫는데 지역 문화의집과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등도 문을 닫는 곳이 많고, 장유·진례·진영전통시장 5일장 역시 일정 기간동안 운영되지 않는다.



2020. 2. 21. 기준 3/10

코로나19 증상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코로나19는 초기증상이 기침, 발열 등으로 시작해 감기와 유사합니다. 2020. 2. 21. 기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KCDC

2020. 2. 21. 기준 3/10

아직 치료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발견을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인데요.

으랏차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KCDC

2020. 2. 21. 기준 3/10

- ★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던 분이 경미한 발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 ✓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 ✓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물며
- ✓ 하루 이틀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KCDC

2020. 2. 21. 기준 3/10

바로 응급실이나 대형병원을 방문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먼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와 상담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KCDC

2020. 2. 21. 기준 3/10

관할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상담 후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자차를 이용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KCDC

2020. 2. 21. 기준 3/10

- ★ 진료 전 의료진에게
- ✓ 해외 여행력 및
- ✓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를 알리고,
- ✓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를 잘 따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KCDC

2020. 2. 21. 기준 3/10

- ★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KCDC

2020. 2. 21. 기준 3/10

- ★ 고령자 및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발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 ✓ 관할 보건소 및 1339콜센터에 상담 후,
- ✓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KCDC

2020. 2. 21. 기준 3/10

정부는 코로나19의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위생수칙 지키기, 병문안 자제하기, 병원 방문 전 보건소 및 1339콜센터에 먼저 상담하기 등 적극 협력해 주신다면 코로나19를 큰 문제없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KCDC